

외환리포트

전일동향	전일 대비 19.10원 상승한 1,495.50원에 마감
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9일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전일 대비 19.10원 상승한 1,495.50원에 마감했다.

이날 환율은 NDF 증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16.60원 상승한 1,493.00원에 개장했다. 국제유가 급등세와 이에 따른 강달러 흐름으로, 1,495.50원에 증가(15:30 기준)를 기록했다. 이는 정규장 증가 기준으로 2009년 3월 12일 이후 17여년만에 최고 수준이다.

주간장중 변동 폭은 14.70원이었다.

한편, 이날 외환시장 마감시점의 엔-원 재정환율은 948.47원이다.

전일 달러 변동	시가	고가	저가	증가 (15:30)	평균환율 (매매기준율)
	1493.00	1499.20	1473.60	1495.50	1493.10

전일 엔화 변동	시가	고가	저가	증가
	934.93	948.68	931.00	948.47

전일 유로화 변동	시가	고가	저가	증가
	1713.46	1740.46	1700.81	1740.03

F/X(달러-원) 스왑포인트	1M	3M	6M	12M	
	보장환율(수출)	-0.98	-4.14	-9.46	-16.79
	결제환율(수입)	-0.56	-2.82	-7.27	-13.22

*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로 당일자 청약시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
* 해당월 말일(영업일)까지의 스왑포인트 기준
*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 홈페이지(<https://www.ksure.or.kr/rh-fx/index.do>)에서 확인가능

금일 전망	유가 하락과 종전 시그널에...1,460원대 중심 등락 전망
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(-1.20원)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(1,495.50) 대비 33.80원 하락한 1,460.50원에서 최종호가 됐다.

금일 환율은 국제유가 하락과 전쟁 조기 종료 가능성으로 하락 전망한다. 간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은 사실상 종료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발언하며, 당초 4-5주로 예상됐던 전쟁 일정이 예상보다 빠르게 마무리될 가능성이 부각 되었다. 이에 국제유가

가 배럴당 80달러대로 급락하였고, 뉴욕 증시가 반등하면서 원화에도 강세 압력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된다. 아울러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회복됨에 따라 국내 증시에서의 외국인 대규모 순매도 또한 제한될 가능성이 높으며, 수출업체 네고물량 출회 등 환율 고점인식에 따른 달러 매도 역시 환율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.

다만,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수입업체 결제 등 역내 달러 실수요 매수세가 환율 하단을 뒷받침할 전망이다.

금일 달러/원 예상 범위	1455.75 ~ 1471.00 원
체크포인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: -31735.38 억원 ■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(NDF) :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33.80원 ↓ ■ 美 다우지수 : 47740.8, +239.25p(+0.5%) ■ 전일 현물환 거래량(종합) : 144.62 억달러 ■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: +11089 억원

주의사항

※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.
 ※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